

타이완, 중국 ABS 시장 집중투자

ChiMei · Formsa, PS 플랜트도 건설 ... 중국이 최대 수입국 부상

중국이 타이완 ABS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타이완 생산기업들의 중국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타이완 Chi Mei는 중국 Zhenjiang Jiansu 소재 ABS 25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인데 완공시 ABS 총생산능력 50만톤을 갖추게 되고 PS 30만톤을 합쳐 중국 최대의 Styrene 유도제품 생산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Styrene 유도제품 생산능력에서 Chi Mei는 한국의 제일모직 다음으로 2위 생산기업이다.

Zhenjiang GPPC Chemical은 타이완의 Grand Pacific Petrochemical이 출자한 화학기업으로 ABS 25만톤 플랜트 신설을 통해 총생산능력 40만톤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Zhenjiang GPPC Chemical은 PS 생산능력이 없어 Chi Mei에 비해 ABS 생산능력이 제한적이다.

Formosa Chemical & Fiber는 Zhejiang Ningbo Beilun Special Economic & Technological Zone에서 PS 및 ABS 각각 30만톤 플랜트 착공에 들어갔으며 완공시 Styrene 유도제품 생산능력이 Chi Mei 플랜트 다음가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완 석유화학산업연합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ABS 수요가 269만6000톤으로 세계 총수요의 절반에 달했으며 중국이 세계최대 ABS 수요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ABS 수요는 2005년 350만톤, 2010년에는 500만톤으로 세계 총수요의 51%, 5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ABS 수입국이기도 한데 중국의 수입량이 세계 ABS 무역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ABS 생산량이 92만8000톤으로 자급률은 34.4%에 불과하며 공급부족은 177만톤, 수입은 179만톤을 나타냈다. 수입 상대국 중 타이완이 1위, 한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타이완의 ABS 내수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달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타이완 생산기업들은 특히 중국시장 진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04>